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이 지식은 완전한 침묵의 지식이다. 이것에 관해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 그저 침묵의 대양인 아버지만을 계속해서 기억하여라.

질문: 발전의 토대는 무엇이나? 너희는 언제 아버지의 가르침을 훈습할 수 있게 될 것이냐?

대답: 발전의 기반은 사랑이다. 너희는 한 아버지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도 발전이 없다면, 틀림없이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 만일 사랑이 있다면, 너희는 아버지를 기억할 것이다. 아버지를 기억함으로써 너희는 그의 모든 가르침을 훈습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너희의 차트를 적어라.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마라. 영혼의식이 되면서 계속해서 너희 자신을 개선해라.

음 산티. 자녀들아, 너희 자신들을 영혼이라고 여기며 여기 앉아서 아버지를 기억하여라. 바바가 너희에게 묻는다. 너희가 집회에서 강연을 할 때, 너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영혼이라고 여기세요, 아니면 몸이라고 여기세요?”라고 끊임없이 묻느냐? 여러분 자신을 영혼이라 여기면서 여기 앉으십시오. 환생하는 것은 영혼이다. 너희들 자신을 영혼이라 여기며,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을 기억하여라. 너희의 죄는 아버지를 기억함으로써 없어질 것이다. 이것은 요가의 불이라고 불린다. 무체인 아버지가 무체인 너희 자녀들에게 말한다: 나를 기억함으로써 너희의 죄가 잘려나갈 것이고, 너희는 순수해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해방과 해방된 삶을 얻을 것이다. 모든 이가 반드시 해방된 후에 해방된 삶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거듭 이 말을 들어야 한다. 여기에 앉아 있는 동안 너희가 영혼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형제자매들, 너희들 자신을 영혼이라고 여기며, 여기 앉아서 아버지를 기억해라. 아버지가 이 명령을 내려주었다. 이것은 기억의 순례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너희 지각의 요가를 나에게 연결해라, 그러면 여러 생 동안의 너희의 죄가 불에 타버릴 것이다. 오직 너희가 거듭 사람들에게 이를 상기시켜주고 설명해줘야만 영혼은 불멸하고 몸은 없어지는 것임을 그들이 이해할 것이다. 불멸하는 영혼이 없어질 몸을 택해서 그의 배역을 연기한 다음에 몸을 벗고 다른 몸을 취한다. 영혼들의 본래의 종교는 어쨌든 평화다. 영혼들은 그들 자신의 종교를 모른다. 아버지가 지금 말하는데, 나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주된 것이다. 우선 첫째로, 너희 자녀들은 이 노력을 해야 한다. 무한한 아버지가 너희 영혼들에게 이 말을 한다. 이 점에서 어떤 경전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 만일 너희가 기타를 예로 든다면 사람들은 너희가 기타만 공부한다고 말하면서 당신들은 왜 베다는 언급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것이다. 바바가 이미 일러주었듯이, 그들에게 베다가 어떤 종교의 경전인지 물어봐라. (아리야 종교입니다.) 너희들은 어떤 종교를 아리야 종교라 부르느냐? 힌두교는 없다. 본래의 영원한 종교는 신인종교이니 아리야 종교는 무슨 종교냐? 아리야 종교는 아리야 사마지의 종교일 것이다. 아리야 종교란 이름을 가진 종교는 없다. 누가 아리야 종교를 세웠느냐? 사실 너희는 기타도 공부하지 말아야 한다. 첫 번째 것은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고 여기며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사토프라단이 될 것이다. 지금 이때에 모든 이가 타모프라단하다. 우선 첫째로, 너희들은 아버지를 소개해야 한다. 너희는 그저 한 아버지만 칭송해야 한다. 오직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을 때만 너희가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들은 이 측면에서 약하다. 바바가 언제나 말하는데, 너희들의 기억의 순례의 차트를 적어라. 너희들 각자가 자기 가슴에 물어봐야 한다. 나는 어느 정도로나 기억하며 머물러 있는가? 너희 자녀들은 가슴 속에 행복을 가져야 된다. 만일 너희 자녀들의 내면에 행복이 있다면, 너희가 남들에게 설명할 때 이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할, 첫 번째이며 주요한 것은 이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영혼이라고 여기십시오. 다른 영적인 집회에서는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런 집회들 중에는 영적인 곳(삿상)이 하나도 없다. 진리와의 동반은 오직 한 분과만 동반하는 것이다. 나머지들은 모두 거짓 동반이다. 여기서,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베다들을 통해서만 아무 종교도 세워지지 않았다. 그런데 왜 우리가 베다를 공부해야겠느냐? 이 지식은 아무에게도 없다. 그들 자신도 “네티, 네티(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즉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한다. 그러니 그것은 곧 그들이 무신론자라는 뜻이다. 아버지 자신이 지금 말하는데, 유신론자가 되어라. 너희들 자신을 영혼이라고 여겨라. 이런 것들이 기타에는 약간 언급되어 있지만, 베다들에는 들어 있지 않다. 많은 베다들, 우파니샤들 등이 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종교의 경전들이냐? 사람들은 제 자신의 의견들을 얘기한다. 너희는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말아야 한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한다.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고 여기며 아버지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가 순수해질 것이다. 이런 이유로 너희는 세계의 역사와 지리를 알아야 한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트리무르티와 사이클의 그림들이 주된 그림들이다. 모든 종교가 그것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 우선 첫째가 신인종교다. 아버지가 이미 말했듯이, 트리무르티와 사

이클을 아주 큰 그림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텔리의 주된 몇 군데 장소에 높이 걸어놓아라. 그것들은 함석에 그려야 한다. 사다리의 그림은 다른 종교들을 모두 다 보여주진 않는다. 이 두 가지 그림이 주된 그림들이다. 너희가 설명해야 할 것은 이것들이다. 첫 번째가 아버지께 대한 소개다. 너희는 오직 한 아버지께에서만 유산을 받는다. 이 한 측면에 대한 믿음을 주입하지 않고는 아무도 너희가 그들에게 말해주는 그 무엇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아버지께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다른 그림들을 설명해줘도 소용없다. 알파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하지 않고는 다른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너희는 오직 아버지께에서만 무한한 유산을 받는다. 자녀들이 어째서 그렇게 쉬운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바바는 의아하구나! 영혼인 너희들의 아버지는 시바이고, 너희는 그에게서 유산을 받는다. 너희들끼리는 모두 형제들이다. 이것을 잊을 때는 너희가 타모프라단하게 된다. 이제는 아버지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는 사토프라단해질 것이다. 주된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아는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모른다. 리시들과 무니들조차 그들을 몰랐다. 그러니 우선 첫째로 아버지를 소개해서 모든 이를 유신론자로 만들어라. 아버지가 말하는데, 나를 앞으로써 너희는 모든 것을 알 것이다. 만일 나를 모르면 너희는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한다. 드라마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림들은 뭐든지 좋다. 그러나 비록 너희가 무척 많이 노력해도, 이것은 어느 누구의 시각에도 자리잡지 않는다. 자녀들은 묻는다: 바바, 저희가 설명하는 방식에서 잘못이 있습니까? 바바는 즉시 말한다: 그래, 자녀들아, 실수가 있구나. 그들에게 말해라: 당신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한, 아무것도 당신의 시각에 자리잡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알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엔 즉각 그들에게 가달라고 해라.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고 여기면 그 눈이 예절 바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영혼의식이면 너희의 눈이 너희를 속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영혼의식이 아니면 마야가 계속 너희를 기만할 것이다. 너희가 우선 첫째로 영혼의식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바바가 말한다: 나에게 너희의 차트를 보여주어서 내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해라. 심지어 지금까지도 너희가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거나 화를 낸다면, 너희는 너희들 자신의 진실을 말살하고 있는 셈이다(너희들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음). 너희의 차트를 보면서 바바는 너희가 진실을 썼는지,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했는지 이해한다. 바바는 모든 자녀에게 “너희의 차트를 적어라”라고 이른다. 요가에 머물지 않는 자녀들은 봉사를 그만큼 많이 할 수 없다. 그들은 제 자신을 힘으로 채울 수 없다. 바바가 말한다: 단지 수백만 중에서 오직 한 손에 들 소수만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들 자신이 요가에 머물지 않는다면 어떻게 남들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산야시들은 행복이 까마귀 똥 같다고 얘기한다. 그들은 행복이라는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는다. 신봉이 많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안다. 그것에는 소음이 엄청난 반면, 너희의 지식은 아주 고요하거나 조용하다. 아버지 한 분만이 침묵의 대양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해라. 너희들 자신을 영혼이라고 간주하며 아버지를 기억해야 한다. 아버지가 말한다: 만마나바브! 이 용어는 심지어 말하지도 마라. 힌디어는 힌두스탄의 언어다. 그런데 왜 다른 언어인 산스크리트어가 있느냐? 이젠 그런 언어들을 젼혀뒤라. 우선 먼저 강의를 해라. 여러분 자신을 영혼이라고 여기십시오. 그들 자신을 영혼이라고 여길 수도 없고, 기억하며 머물 수도 없는 이들이 많다. 그들 중 누구도 자기들의 손실을 이해할 수 없다. 오직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에만 유익이 있다. 다른 영적인 집회 어디서든, “여러분 자신을 영혼이라 여기며 아버지를 기억하세요”라고 얘기하는 데는 없다. 아이들이 제 아버지를 기억하려고 한 장소에 앉아 있는 적이 있느냐? 그들은 걷고 앉고 움직여 돌아다니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자기 아버지를 기억한다. 너희는 지금 영혼을 의식하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 너희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말하지 말아야 된다. 주된 것은 기억의 순례다. 오직 요가의 불을 통해서만 너희가 순수해질 것이다. 지금 이때에는 모든 이가 다 불행하다. 오직 순수해짐으로써만 행복을 받는다. 너희가 영혼을 의식하면서 남들에게 설명하면, 화살이 그들을 맞힐 것이다. 제 자신은 악덕에 탐닉하면서 남들에게 악덕 없이 되라고 얘기한다면, 그 화살은 파격을 맞히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가 말하는데, 자녀들아, 너희들 자신이 기억하며 머물지 않으니 화살이 표적을 맞히지 못한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이제 과거는 과거로 놔두어라. 우선 먼저, 너희들 자신을 개선해라. 너희의 가슴에 물어보아라. 나는 얼마만큼이나 나 자신을 영혼이라 여기며, 나를 세계의 주인으로 만드는 아버지를 기억하는가? 우리는 시브 바바의 자녀들이니 반드시 세계의 주인들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랑스러운 분이 혼자 와서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으니 너희는 그를 극진히 사랑해야 마땅하다. 사랑이란 기억을 의미한다. 한 쌍의 부부가 결혼할 때, 아내는 남편을 무척 많이 사랑한다. 너희는 지금 약혼했고, 결혼은 안 했다. 너희가 비슈누의 나라로 갈 때 결혼할 것이다. 너희는 먼저 시브 바바에게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의 시택으로 갈 것이다. 약혼의 행복도 못지 않다! 너희가 누군가와 약혼하자마자, 그 기억이 확고해진다. 황금시대에도 약혼하지만, 거기서의 약혼은 결코 깨지지(과혼) 않는다. 거기에는 불시의 죽음이 없다. 그것은 여기서 일어난다. 너희 자녀들은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살면서 순수를 지켜야 한다. 비록 너희가 가까이 살고 있어도 그런 발전이 없다. 그 사랑으로 여기에 오는 자들은 많이 발전한다. 기억이 없으면 그 사랑도 없고, 그러면 너희는 그의 가르침들을 훈습할 수 없다. 신이 말한다: 너희 자녀들은 모든 이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정욕은 그 시작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슬픔을 초래하는 최대의 큰 적입니다. 여러분은 황금시대의 순수한 주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타락했고 더러워졌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생애 다시 한 번 순수해지십시오. 정욕의 장작더미에 앉는 속박을 무효화시켜라. 너희 자녀들이 요그윅트한 태도로 말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지각에 자리잡을 것이다. 지식의 칼에 요가의 힘이 들어있어야 한다. 자녀들이 말하는 첫째이며 주된 것은, "바바, 저희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거의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라는 것이다. 바바가 말하는데, 요가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설명해라. 요가의 순례에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해라. 너희는 라반에게 패배 당해왔고 사악해졌다. 이제 악덕 없이 되어라. 아버지를 기억함으로써 너희의 소망들이 전부 다 충족될 것이다. 바바는 너희를 천국의 주인들로 만든다. 바바는 여러 가지 지시를 내려주지만, 자녀들은 그것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일들에 몰두하게 된다. 주된 것은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일이다. 그러나 너희들 자신이 기억하며 머물지 않는다면 너희가 어떻게 남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속일 수는 없다. 남들에게는 정욕에 탐닉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 자신은 그것에 탐닉한다면 너희의 양심이 반드시 찢릴 것이다. 심지어 그런 사기꾼들마저 있다! 이런 이유로 바바가 말하는데, 주된 것은 알파를 아는 것이다. 알파를 앎으로써 너희는 모든 것을 알 것이다. 알파를 모르면 너희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앓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떼라고 말한다.

실천 요지:

1. 아버지를 기억하며 머무는 내면의 행복을 유지하면서 남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해라. 모든 이에게 한 아버지에 대한 찬양을 들려주어라.
2. 영혼의식이 되는 훈련을 아주 많이 쌓아라. 너희는 지나치게 많이 말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는 과거로 놔두고, 우선 먼저 너희들 자신을 개조해라. 정직하게 너희의 기억의 순례의 차트를 기록해라.

축 복: 이 무미건조한 세상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지냄으로써 무관심의 태도를 지닌 진정한 라즈 리시가 되어라.

라즈 리시는 왕국을 지니고도 무한한 무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다; 어떤 몸이나 낡은 육신의 세계에 조금도 애착을 갖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 낡은 세계에는 아무런 맛도, 진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무런 맛도 없는 이 세상에서 너희는 브라민들의 세계를 찾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에 무한한 무관심을 가진다, 즉 그것에 전혀 애착이 없다. 아무에게도 애착을 가지거나 종속되지 않을 때, 너희는 라즈 리시이며 타파스위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슬로건: 욕티윅트한 말은 다정하면서 좋은 염원으로 가득한 말이다.

*** 음 샐티 O M S H A N T I ***